원수 대신 ‘원수효과’를 없애자

(시편 13:1~6)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원수 대신 ‘원수효과’를 없애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원수 대신 ‘원수효과’를 없애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 사도들 초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의 삶 안에 원수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은 원수와 직접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효과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 대적들을 이겨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주체가 당신임을 명확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내부에서 원수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인 원수효과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효과를 극복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원수들을 심판해 나가셨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등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의 등장을 통해서 내게서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류구원의 역사도 가룟 유다 빌라도 헤롯대왕 대제사장들과 같은 원수들의 등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원수효과는 그 뿌리가 뽑히거나 근원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발본색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효과를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원수와의 대치국면에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원수와 대치국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의 대치국면이든지 압살롬과의 대치국면이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 집안 식구를 원수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나를 해치려는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시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은 원수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외부의 원수로 인해 내 마음 속에 원수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효과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을 원수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가족이나 애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게서 원수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심도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원수효과를 없애라고 하신 말씀이고, 가족을 원수로 여기라고 하신 것도 원수효과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렇게 다윗이 원수들과의 대치국면에서 원수를 없애 달라고 기도하거나 원수를 없애려는 뜻을 품는 대신에, 마음속에 생겨난 원수효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원수와는 싸우지 않아도 원수효과를 붙들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와 싸우지 않습니다. 원수를 없애든지 존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은 원수효과를 없애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절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원수효과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실 때는 없습니다. 욥기 7장 19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괴로워서 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침을 삼킬 동안도 주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얼굴을 숨기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얼굴이 내 마음에서 가려진 것뿐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를 왜 얼굴이 숨겨졌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얼굴을 나를 향하고 계신데 내 마음이 무엇인가로 인해 가려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겨졌다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상태란 어떠한 상태일까요?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에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함이 느껴질 때에 눈을 들어 온 세상의 삼라만상과 모든 대상들과 심지어 원수들에게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라고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그렇게 함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룸이 합당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삼라만상과 모든 사건과 일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지 못함을 애절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향한 얼굴을 돌리지 않고 계시는데, 왜 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혼(마음)의 번민과 종일토록 하는 근심의 이유는 바로 원수의 공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라는 구절로 미루어볼 때에 원수의 공격이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다윗은 무척 심한 곤경에 빠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상 이 공격은 전쟁으로 인한 공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 같이 비판이나 중상모략과 같은 언어로 인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요즘 같으면 악성댓글을 달거나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의 공격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궁지에 몰리지 않았나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가 자랑거리로 삼을 만큼 나를 대적하여 전개하고 있는 거침없고 성공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번민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에서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효과입니다.
다윗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은 원수와 대치하는 국면 자체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비롯된 원수로 가득 찬 마음 상태를 벗어나려고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신에게 가장 큰 손실은 왕권을 빼앗기거나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건

강이 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손실이 될 수는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결정적 손실은 오직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빼앗겼고 마음이 원수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번민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느냐?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원수로 가득 찼을 때에 원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혹은 어떻게 해야 그 원수의 공격을 방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원수로 인해 물리적으로 입게 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로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 대해 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 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과 번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두려운 것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칼과 창이나 원수와 대적할 만한 날카로운 언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청결'은 곧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책이 꽂혀 있는 책장도 깨끗하고 김치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김치를 책장에 올려놓으면 깨끗한 것과 깨끗한 것의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책장 전체는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계셔야 될 분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는 것이 청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원수로 가득 차 버렸다면 이 상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행동의 이유가 아니라 원수로 가득 찬 마음상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에 사로잡힌 상태를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망은 나의 존재가 괴멸되고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사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원수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원수효과로 인해 죽어 감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로 가득하면 원수가 나를 죽이기도 전에 이미 나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돈이 원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내용과는 별개로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돈 걱정을 하느라 돈이 마음에 가득 차면,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원수가 됩니다. 자녀가 원수라는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자녀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버리기 때문에 진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소중한 자녀를 왜 원수로 삼아야만 합니까? 이들은 마음 바깥에 존재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원수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소중한 자녀는 원수로 삼아 밖으로 내보내고, 마음으로 파고든 원수는 사랑해서 밖으로 보내서 원수효과를 없애는 것입니다.

원수효과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수효과를 사망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망의 잠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가득 차버린 상태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수가 마음에 찬 상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행동에 옮긴다.'라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에 의해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사망으로 깨닫지 못한 채 그 다음 취해야 될 행동을 끄집어내면서 살고 있는 것을 사망의 잠을 자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원수효과에 묶였다가는 원수를 향한 행동에 이르게 됨을 알았습니다. 내 손을 뻗고 내 칼을 뽑고 내 계획을 행동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분노와 분개의 마음으로 원수를 향해 적극적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인 이유는 사망의 상태를 사망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 이하를 통해 다윗에게 원수와의 관계에서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명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리적인 손실을 패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건강이나 왕의 자리나 명예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손실을 손실로 여기지 않고 패배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을 손실과 패배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볼 때의 실패는 원수들이 행하는 영적 통찰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었음을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득 차실 때에 원수가 맞닥뜨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될 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원수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낸 상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은 곧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온 상태가 죽었음을 뜻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은 곧 사망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나의 사망을 죽이신 것입니다. 사망의 죽음은 곧 부활입니다. 죽음이 죽으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녀는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효과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차야 하는 마음이 자녀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가 곧 사망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나의 사망과 죄악을 위해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자녀로 가득 찬 내가 죽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늘로 가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것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몸으로 관계된 자녀들은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효과를 없애기 위한 십자가 생활화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와 원수효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몸에 암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암은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걸렸든 나와 가까운 사람이 걸렸든 암이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암이라는 병에 의해서 마음도 원수효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병 걸린 몸을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마음은 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병원에서 병을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꼭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걸렸다면 먼저 내 마음에서 원수효과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병에 걸린 몸은 잠깐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자매처럼 지내는 두 분 집사님이 계신데 한 분의 딸이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한 달 반 뒤에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상선 암은 암 중에서 예후가 가장 좋은 암이라서 수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젊은이라서 한 달 반 동안 전이될까 걱정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달 반 동안을 주신 이유는 원수효과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로 차 있던 마음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고, 당사자인 딸은 암에 대한 걱정으로 차있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원수효과를 극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 달 반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알고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어머니는 마음에서 딸을 빼내고 하나님을 채워야 하고, 딸은 마음에서 암을 빼내고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원수효과와 싸워 이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삶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원수효과를 날마다 극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물리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원수들까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